

민주적 시민성 양성을 위한 독서지도

조 기 홍

(대전 성모여자중학교 사서교사)

1. 머리말

학교교육의 목표는 종국적으로 민주적 문화국가의 건설이란 큰 이상과 직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학교는 그 종류와 단계에 구분이 있어서 그 구체적인 목표가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 일관하는 기본 이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학생들의 개성을 신장시키며,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향상시키며, 민주적 국가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교양있는 인간을 형성하는데 있는 것이다. 즉 진실을 추구할 줄 알고 자주적으로 행동하며 책임감이 투철할 뿐만 아니라 우애, 협동의 태도와 공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갖춘 이른바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간상을 형성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결리튜덤이나 가이던스, 평가 등 여러가지 교육계획은 이러한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구성 전개되어야 하겠으며, 학교도서관은 모든 학교교육활동의 원천지인 동시에 또 실천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 날과 같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지식 주입 위주의 학습활동의 학교생활이 절대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우리들의 교육풍조하에서는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더욱 크게 요청되는 일이며 이것은 학교도서관 활동에 기대되는 큰 요인중의 하나 일 것이다.

2.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질

민주주의가 일차적으로는 정부의 형태나 경제체제 등의 외형적인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국민 각 개인이 어떠한 인격을 지니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내면적 특징이 더 큰 것이다. 즉 모든 국민이 올바른 자유와 권리 및 책임을 가지고 효과있게 국가 살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삼어야 할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질이란 국민교육현장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스스로 개발하며, 인권을 존중

하여 공익과 질서를 앞세워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함으로써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적극적인 협동정신의 자세와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나아갈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기본된 자질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가. 인권 존중

민주주의의 핵심적 사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기본적 가치와 그의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여러가지 행위가 여기에 기초를 두고 다각적으로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권의 존중을 중심으로 한 시민적 자질은

① 인간의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존엄한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고, 인간행동의 인과관계에 대한 행동과학적인 사고에 의한 이해와 관용이 있어야 한다.

② 모든 개인이 자기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육성 발휘하여 개인적 행복과 사회에의 공헌을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믿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③ 진실된 의미에서의 개인차를 존중 관용할 줄 알아야 한다.

나. 공익을 위한 협동과 봉사

협동과 봉사의 개념은 앞에서 말한 바의 인권 존중이라는 중핵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민으로서의 가장 결여된 생활개념이라고 보겠다. 이것은 아마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데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회는 각 개인들이 발휘하는 독특한 자질을 통합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하면서 동시에 각 개인의 최대한의 자기 실현에 작용한다는 상호작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개인과 사회에 보다 큰 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요인으로서 민주적인 협동과 봉사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협동과 봉사 개념을 지니는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질은

① 개인과 사회(가족→교장→국가→세계→우주에로 확대되는 보다 큰 전체)는 공동 운명체로서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회를 위한 개인의 봉사는 곧 보다 큰 자리에의 봉사로 간주할 줄 알아야 한다.

② 집단의 공동과제를 수행하는데 각 개인의 효과적인 공동목표에 대한 의식과 효과적인 협동이 요청된다.

③ 민주적인 집단과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 각 개인의 명확한 의사 소통과 갈등된 의견의 조정, 가치의 비교 및 판단 등의 기초기능과 다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④ 공동과업의 민주적 지도성과 성숙한 추종성(Followership)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공익을 위한 협동과 봉사의 의무가 강해야 한다.

다. 자유와 책임

자유와 책임의 개념은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 개인은 건전한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장애 요인(이러테면 공포, 억압, 불안, 실패, 열등의식 등)으로부터 보장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창의적인 제도나 기구, 생활 양식의 구상이 중요시되며 자유의 값은 책임있는 행동에 있는 것이다. 자유와 권리는 동반되는 것이며, 극기(克己)와 의무를 청하는 것이니 참다운 자유를 아는 인간은 무책임한 이기심에서 벗어나 공동복지에 대하여 민감한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 단순한 법률적 규제에 의함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도덕적 자기 규제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운영원칙인 것이다. 즉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감은 어떠한 기구나 제도에서도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① 훌륭한 민주시민은 책임있는 자유로 진실성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② 자신의 일을 자신이 책임지고 결정할 줄 알아야 한다.

③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가 귀중함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④ 책임있는 자유를 즐길 수 있기 위해서 각 개인은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이 공간적 시간적(가깝고 먼 이웃과 장래)으로 어떠한 영향을 던지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반사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⑤ 각 개인의 책임있는 자유의 보장은 그것이 통합되어 사회의 보다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아야 한다.

라. 질서와 준법

문화가 고도로 발달하고 인구가 폭증하며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배가되어가는 현대사회는 말할 수 없이 복잡해만 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의 이해가 서로 갈등되기만 하는 오늘의 사회에서 누구에게도 침범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리를 정당하게 보호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인권이나 각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강한 도덕적 자제력에만 의존하기에는 사회의 복잡성과 외곡된 인성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안정된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규제된 것이 법이며, 이 법은 개인과 개인 및 사회와의 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하나의 약속(민주시민 교육 설악산 세미나에서 행한 이 항녕 교수의 강연 “준법정신”에 관한 해설 중에서)이라고 하였다. 이 약속의 성격은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며, 사회의 질서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는 것이며, 각 개인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니 법의 공정성과 그 준수는 민주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없을 수 없는 요소이다. 즉 준법은 “나”를 넘어서 보다 커다란 전체속의 “나”를 살리는 일이니 준법은 법의 힘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집단(사회)의 발전을 위한 강한 도덕적 자제력을 이해하고

① 모든 개인은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나가기에 필요한 생활 규범으로서의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준수만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보다 크게 복지화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② 자기 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법 규정을 정확히 알고 지킬 줄 알아야 한다.

③ 민주사회에서는 어떠한 법도 각 개인의 기본권리를 옹호 신장하는데 최대한으로 공헌한다는 신념으로 그 제정, 집행, 개정에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자치생활

자치생활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실천적 양상의 대표적인 것이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각 개인은 제각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사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자기의 일을 자신이 결정하고 운영하며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각 개인의 기본권리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자기 소속된 집단사회의 운영에 즐겨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또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자치생활에서 시민이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은

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이해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맞는 좋은 지도자를 선출할 줄 알아야 한다.

② 선출된 지도자의 법에 의한 권위를 존중하고 선출된 지도자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비판과 충고로서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

3. 독서지도

독서지도는 독서를 통한 생활지도인 동시에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활동이다. 즉 민주시민으로서 적합한 성격은 더욱 신장시키고 그렇지 못한 성격은 치료 교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성격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뜻하지 않는 어떠한 자극으로 성격의 일부가 변하는 일은 가끔 있는 일이다. 이러한 인위적인 성격형성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기술중 독서요법이 적지않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임상심리학에서 성격치료를 방법으로 훈화법(指示療法), 문답법(非指示法) 표현법(描寫療法) 회화법(遊戯療法) 토의법(集團療法)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들의 두세 방법을 겸용하면 효과는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중 독서요법은 다음의 특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①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자기 개조를 이룩할 수 있다. 지도자로부터의 압력을 받지 않으며, 혼자서 독서하며, 그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처해야 할 자세를 생각하고 반성하고, 격려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도자에 대한 경계와 반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사회성이 약한 학생들에게도 효과있는 일이다.

② 학생들에게 깊은 감명을 줄 수 있다. 문학은 그 자체가 독자들에게 감동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기가 치료대에 올려져 있다는 의식을 가지지 않고 재미있는 얘기거리에 빠져 읽고 있노라면 가슴 깊이 스며드는 감동을 느끼는 일이 있으며 이러한 감동은 학생들의 마음속 깊은 정신적(성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③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독서력만 있으면 그들은 각자가 자기에게 적당한 속도로 읽으며 감동되는 점이 있으면 몇 차례씩이라도 되풀이해서 읽을 수가 있다. 지도자는 또한 소기의 효과가 나타날 때 까지 독서를 바꿔가며 계속적으로 지도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독서요법은 학생들의 적응이상(適應異常)을 치료하기 위한 지도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며 또 이상자의 요법 뿐만 아니라 정상자의 성격의 적극적인 강화 지도에도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 문학 작품을 읽히는 것이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기에서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가. 성격 표목표

위에서 논한 독서를 통한 민주시민적 성격의 형성을 위한 지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달성시키고자 하는 과제에 대하여 적당한 읽을거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지도의 효과는 적서를 정확히 선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며, 지도에 이용하려는 독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피 지도자의 성격 및 생활의 전체를 파악하고 이른바 “전인교육”의 입장에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질에 부합되는 인간 성격의 표준 유형(이하 성격표목이라고 칭한다.)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표목표는 지도하려는 성격에 적합한 주제의 독서를 검색할 수 있는 색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격을 어떠한 어휘(표목)로 나타내느냐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일정한 체계있는 표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시도해 보았다. 이것은 아직 성격의 특성을 충분히 나타내는 표목표가 되지 못함을 전제해 두는 바이며 앞으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믿는다. 다만 이 표목표에 사용한 어휘는 가능한 한 간단하고 명확한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테면 “애교심”은 학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주제의 독서를, 그리고 “학교생활”은 학교생활의 의의나 즐거움 또는 학교생활에 권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태도를 치료, 교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의 독서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나 행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를 다 같이 섞어 사용하였다.

성격 표목표

- 가난 → 평등, 인내
- 가정에 ← 가족
- ⇒ 애정
- 가족 → 가정애
- 감사 ← 보은
- 감정적 → 자제력(자기를 다스리는 일)
- 계획성
- 고립 → 의지
- 공공심 →公德심
- 公德심 ← 공공심
- 공동생활 → 사교성
- 공부 → 노력, 근면
- 관용
- 국민적 자각심
- 국제이해 → 국제적 협력
- 국제적 협력

권리·의무
 규율
 근로성
 근면 ⇒ 노력
 ← 태만
 노력 → 공부
 ⇒ 근면
 ⇐ 신체적 결합
 동물애 ⇒ 생명존중
 명랑 쾌활
 모험 → 용기
 반성
 반항 → 순종심
 봉사정신
 부주의 → 주의력
 사교성 ← 공동생활
 생명존중 ⇒ 동물애 인권존중,
 ⇐ 신체적 결합
 성실성
 순종심 ← 반항
 순결성
 신뢰감
 신미감
 신앙심 ← 종교
 신체적 결합 ⇒ 노력, 생명존중.
 애교심 ⇒ 학교생활
 ⇐ 학교생활
 애국심 ⇒ 충성
 애정 ⇒ 가정애, 우정, 형제애.
 ⇐ 가정애, 우정
 애향심 → 향토애
 약속
 연구심 → 탐구심
 열등감 → 자존심
 예절
 용기 ← 모험
 우정(友情) ⇒ 애정
 유혹 → 의지력
 의지력 ← 유혹
 이기심(利己心)
 인간존중 → 인권존중
 인간존중 ← 생명존중
 인내심
 인류애
 자존심 ← 열등감
 자유·책임 → 책임감

자제력(充己)
 자주성
 자치성
 정의감
 정직
 존경심
 주의력 ← 부주의
 지역사회 → 향토애
 직업관
 창의성
 책임감
 친절성
 탐구심 ← 연구심
 태만 → 근로성
 평등 ← 가난.
 평화
 학교생활 ⇒ 애교심
 행복감
 향토애 ← 지역사회, 애향심
 허영심
 협동정신
 희망 고취
 희생 정신

위의 표에서 사용된 참조 기호는 주제명 표목표에서와 같이 사용하였다. 다만 상호참조(예; 애교심과 학교생활 등)은 ⇔ 또는 ⇌를 사용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도서의 주제명 표목표에서도 마찬가지이라고 생각된다.

나. 목 목

앞에서 말한 여러가지 성격의 지도를 위해서는 적서를 선정해야 하며, 적서의 선정에 위해서는 또한 도서의 엄밀한 내용의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검토된 내용에 따라 지도하려는 성격을 표목으로 하는 목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림출판사에서 발행한 “이호원” 저서의 실록대하소설 “태평양전쟁” 권4에 기록된 일본군들이 만주에서 실시한 세균실험을 위해서 만주사람들을 마루마(인체에 세균을 주사하여서 그 병균을 배양하며 병균의 강도를 연구 하면서 사람을 죽였다)로 사용한 잔학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교문사에서 발행된 알바아트 슈바이처의 자서전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는 인류애,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양양시킬 수 있는 내용의 도서이다. 이렇게 내용이 분석된 도서는 성격의 표목을 부출한 목목을 작성하면 독서지도의 자료로서 손쉽게 사용될 것이며 또 성격에 맞는 적서 검색에 편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목록의 작성에 있어서는 일반 기본목록에 성격

표목을 부출하고 뒷면에 간략한 내용을 기록해 두면 좋을 것이다. 또 그 도서의 내용이 지니고 있는 다른 성격의 표목(“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라면 “인류애”밖에 “봉사정신” 또는 “인내심” “희생정신”등)도 기록하여 두고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 그 예를 들면

인류애
슈바이처, 알바아트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알바아트 슈바이처
저, 강두식 역. 서울, 교문사, 1965
214p 21cm
합綴; 아프리카 이야기
○

內容; 철학자이자 신학자이며 또한 음악가인 슈바이처가 30세로부터 37세까지 7년이란 기간에 다시 의학을 공부한 후 아프리카 대륙으로 건너가 흑인들을 위하여 병원을 세우고 도와주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의지를 꺾이지 않고 일하는 거룩한 희생적 봉사의 인류애를 기록한 자서전이다.
인류애, 봉사정신. 희생정신. 인내심. 종교심

위의 목록은 성격주제를 표목으로 부출한 카아드이며, 서명으로도 색출할 수 있는 목록 카아드의 작성도 필요하다. 이 목록에는 대조사항, 주기사항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대신 해당되는 성격의 표목은 전부 기입해 두어야 편리할 것이다. 물론 내용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기입해두고 요구되는 도서의 색출과 내용 파악에 참고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 예시를 보면

앙클 틴, 저, 역, 출판사
인류애. 평등. 신앙심 정의. 애정.
내용; 흑인 앙클틴은
.....
.....
○

이들의 목록 카아드는 일반 도서의 사무용 또는 열람용 목록과 같이 배열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사서교사실에 별도로 배열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맺는 말

우리는 그동안 독서지도 방안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연구해 왔었다. 모름지기 우리 학교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이 독서지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만치 독서지도가 학생들의 인성지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독서지도는 우리 사서교사 뿐만이 행하는 교육행위가 못된다. 일반교사들도 다 같이 중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는 분야인 것이다. 또 사서교사가 혼자서 독서지도를 도맡아 실천 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다.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그 도서관의 임무가 자료의 제공이다. 즉 학교도서관에서는 각 교사가 실천하고 있는 독서지도의 길잡이가 되어야 하며 필요하고 적당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참고봉사 해 주는 것이다. 오늘날의 도서관은 자료센터로서의 기능이 가장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위에서 말한 성격 표목을 부출하기 위한 내용분석을 사서교사 혼자서 어느 세월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점의 하나이요. 또 민주적 시민성을 조성할 수 있는 각 분야의 내용의 출판물이 흔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점의 둘째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도서관계에서는 현재 출판되어 있는 도서(번역물도 포함)를 분석 검토해서 성격 표목의 색인을 작성해야만 얻을 것으로 생각되며, 두번째의 문제점은 우리 도서관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첫번째의 문제점은 우리 사서교사들의 단합된 노력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앞으로의 꾸준한 연구활동에 기대를 걸어 보는 바이다.

(이 글은 지난 6월 11~13일 대전 호수몬여자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제9회 전국 학교 도서관 대회에서 발표된 주제 논문입니다. ■ 편집자 주)

<참고 문헌>

- 중앙교육연구소 편. 대학에서의 민주시민 교육. (세미나 종합 보고서) 1964.
- 중앙교육연구소 편. 한국의 민주적 발전과 교육의 과제(세미나 보고서) 1965
- 日本, 全國學校圖書館協會 編. 讀書指導. 昭和 37. (1962)
- 阪本 一郎. 讀書指導. 東京, 牧書店, 1953.
- 阪本 一郎. 讀物による 性格の形式. 2冊. 東京, 牧書店, 昭和 39. (1964)
- Adler, Mortimer J. How to Read a Book
- 권 양원. 독서 지도법. 油印物.
- 趙 敬厚. 새로운 독서지도의 방향, 도협월보, No. 8, Vol. 6(p.8~11)
- 宋永守. 國民學校 兒童의 讀書指導와 그 問題點. 도협월보 No.7, Vol. 8(p. 10~19)